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음 11월 18일) 제21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낭독이 지난 21일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내 시장, 군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새만금 공항 조기건설 예타면제를”

### 도·시·군 정책협의회, 건의문 채택

“경제적 타당성 인정·용지매입 불필요한 장점 갖춰  
2023 잼버리 유치 당시 세계인들에 약속한 바 있어”  
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협력도 논의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한 목소리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장·군수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미래의 땅 새만금을 세계 물류와 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하늘길을 확보하는 것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므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조기 건설에 나서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 용역결과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용지매입이 불필요해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당시 세계인에게 국제공항 이용을 약속한 바 있는 세계인과의 약속이라는 점 등을 예타면제 사유로 제시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에게 전달될 계획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열망하는 200만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라북도·시·군 정책협의회에

서는 도·시·군 협조사항으로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SOC 감축기조 및 신규 사업 억제방침에도 전북도가 2019년 7조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예산 확보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역량을 모아가기로 다짐했다.

한편, 시·군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도에 건의한 내용은 변영로(전주도로) 뱃길 명품화 사업 추진(전주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업체 유치 및 참여 우대방안 강구(군산시), 말산업 특구사업 추진(익산시), 전북도 수소경제 중심산업 육성(완주군) 등 다양한 내용으로, 도·시·군간 협력을 통해 중점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길 문화관’ 舊 남원역사에 조성

2022년까지... 1000리길 체험·홍보 가능

### 생태공간 활용 가능성 커 생태교육장 운영 경험도 장점

전북 1000리길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칭)대한민국 길 문화관이 구 남원역사 터에 조성된다.

전북도는 올해 초 ‘길 문화관’ 추진전략 연구를 시작으로, 사례조사, 시군 설명회를 거쳐,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시·군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6개 시·군 사업대상지 공모에 참가하였으며, 지난 12~13일 2일간 현장 실사와 19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구 남원역사 부지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사업은 자연생태경관이 뛰어난 전북 1000리길을 체험·홍보를 할 수 있는 핵심 시설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1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될 예정이다.

도가 구 남원역사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데는 약 3만6,463㎡ 규모의 남원시 소유의 땅에 방치되어 있던 구 역사를 리모델링해 전시·홍보관 기능을 갖추고, 부지 내 옛 찰길 등을 활용한 사업 및 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의 생태공간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지리산 들레길 등 우수한 길과의 연계성과 현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특별기획전 전시 등 방문객 증가를 이끌어낸 다년간의 운영 경험 등도 큰 장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구 남원

역사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전북 1000리길을 부각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 구성, 프로그램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양영철 전북도 자연생태과장은 “전북도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걷기 좋은 길, 힐링 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길 문화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요계층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우수 사례를 접목,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간 전북도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천혜의 자연유산을 활용한 전북 1000리길 조성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전북 1000리길은 2017년 12월 전라북도에 조성되어 있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생태경관이 아름답고, 하루 반나절 정도 걸을 수 있는 10km 내외의 걷기 좋은 길들을 시·군 및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고 현장답사를 거쳐 14개 시·군, 44개 노선 405km를 선정했다.

올해는 전북 1000리길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GPS정보를 기반으로 한 안내지도 및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으며, 홈페이지, SNS 활용, 걷기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전북 1000리길과 산림자원 등 도의 우수한 생태·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여행 체험 1번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전주승마장서 망아지 탄생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주승마장 감슴용 암말이 망아지를 출산했다. 지난 21일 오전 4시에 전주승마장 마방에서 연이(5)란 이름의 암말이 망아지를 순산했다. 전주승마장에서 암말이 태어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주승마장은 마필육성, 교배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망아지가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 승마장은 감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암말만 구입하기 때문이다. 암말 연이는 올 5월 전주승마장이 구입할 당시 이미 임신상태였다. 그 동안 방목 상태로 자랐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승마장 측은 올 10월이 돼야 배가 부르고 유선이 발달하는 등 임신 징후를 보이는 연이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출산을 대비해 왔다 고 21일 밝혔다. 연이와 망아지는 현재 모두 건강한 상태다. 승마장 측은 모유수유를 하는 연이의 영양분 공급량을 30% 가량 늘리고 지정된 교관과 말 관리사만 마방에 출입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성탄절에 따라 25일자 신문 쏩니다. /김진성 기자

### 청정 고원 먹거리

# 진안로컬푸드

## 전주를 찾아갑니다

2019년 1월 20일 전·후 시범운영  
진안로컬푸드 직매장만 운영

2019년 2월 20일 정식 오픈  
1층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 2층 두루미밥상 식당

문의처  
진안군청 농산물유통팀  
063-430-2958

매장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00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NAVER | 진안로컬푸드 | D.J.M | 진안로컬푸드직매장